



김준 (명지대)

1. 들어가는 말

신명기 25장 5-10절에 나타난 레비레이트혼 규례에 따르면 레비레이트혼의 주요 목적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신 25:6).¹ 롯기의 롯과 보아스의 결혼은 레비레이트혼으로 간주하곤 하는데, 이 규례에 의하면 오벳은 롯의 사망한 남편인 말론의 이름을 이어줄 자녀이다. 그러나 오벳은 말론의 족보가 아닌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룻 4:21; 참조. 마 1:5). 롯기는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오벳이 보아스의

1 레비레이트혼은 라틴어 levir(남편의 형제)로 부터 유래되었다. 레비레이트혼은 형사취수제(兄死娶嫂), 수계혼(收繼婚), 계대결혼법(繼代結婚法), 수혼법(嫂婚法)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족보에 포함된 것은 룯기가 기록된 시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로 이해 할 수 있다.

만일 룯과 보아스의 결혼이 레비레이트혼이라면 왜 오벳은 말론의 족보가 아닌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가? 룯기 저자는 왜 이 족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사망한 남편의 이름을 이어준다는 것이 레비레이트혼으로 태어난 자녀를 사망한 남편의 후손으로 삼아 이름을 잇는다는 의미인가? 레비레이트혼이 아니라면 왜 보아스는 룯과 혼인하여 사망한 남편의 기업을 고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가? 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에 해당하는가? 룯기에 나타난 레비레이트혼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학자들은 레비레이트혼과 관련하여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안하였다. 이 견해들은 크게 룯과 보아스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레비레이트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룰과 보아스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하는 견해 중 주요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명기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와 룯기는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기에 규례가 수정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이다. 티게이(Jeffrey H. Tigay)에 의하면 창세기 38장은 이스라엘 족장 시대 반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죽은 형제를 위해 이름을 잇는다는 것은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었다고 본다.² 레비레이트혼 규례가 나타나는 신명기 25장은 창세기 38장처럼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것이 자녀를 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룯기는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토지가 있는 상황을 반영하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다는 것

2 Jeffrey H. Tigay,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483.

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다(룻 4:5, 10).³ 이 견해에 따르면 룻기에서 사망한 말론의 이름을 잇는 것은 기업을 통해서이며 오벳은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고인의 형제에게 레비레이트혼을 통해 낳은 자녀가 하나뿐일 때 그 자녀는 레비레이트혼을 한 형제의 자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로울리(H. H. Rowley)는 고인의 형제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레비레이트혼을 하게 되었을 때 첫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사망한 형제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레비레이트혼을 한 형제의 자녀라고 제안한다.⁴ 로울리는 오벳의 경우 말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자녀라고 이해하면서도 온전한 결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오벳이 보아스의 자녀로 간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 룻기의 최종 편집 과정 가운데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나타나는 족보가 첨가되었다는 견해이다. 보캄(Richard Bauckham)은 룻기가 여성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성 중심의 결론으로 최종 편집되는 과정에서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되었다고 제안한다.⁵ 룻기의 성문 앞 판결의 장면은 오벳을 고인이 된 말론의 족보를 계승할 후사로 묘사한다(4:9-13).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하는 장면도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로 노래하고 있다(4:14-17). 그러나 룻기의 최종 편집 과정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족보는 오벳을 보아스의 후사로 기록하고 있다(4:18-22). 보캄은 오벳이 여성적 관점에서는 말론 혹은 상징적으로 나오미의 아들로 간주되고 있으나 남성 중심의 결론에서 보아스의 아들로 편입되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레비레이트혼 규례가 역사적 상황, 최종 편집과정, 특정

3 Tigay, *Deuteronomy*, 483.

4 H. H. Rowley, “The Marriage of Ruth”, *Harvard Theological Review* 40(1947), 98-99.

5 Richard Bauckham, “The Book of Ruth and the Possibility of a Feminist Canonical Hermeneutic”, *Biblical Interpretation* 5(1997), 29-45.

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죽은 말론의 기업을 오벳이 상속받는 것이 죽은 말론의 이름을 잇는 것이라고 제안함으로 레비레이트혼을 통하여 태어난 첫 자녀가 고인의 이름을 이어가야 하는 레비레이트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수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인 히브리어 **מגוּלָּה** (“형제 된 의무”)이 룯과 보아스의 혼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룯과 보아스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하지 않는 견해 중 주요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룯이 모압 여인이었기에 혼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레비레이트혼 규례를 차용했다는 견해이다. 베어(Julius A. Bewer)는 보아스와 룯을 통해 태어난 오벳은 말론의 자녀가 아닌 보아스의 자녀로 족보에 나타나고 있기에 오벳은 레비레이트혼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⁶ 그런데도 보아스와 룯의 결혼을 레비레이트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레비레이트혼이 아니면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한다.⁷ 베어는 룯기에 레비레이트혼의 요소가 포함된 것은 에스라의 배타적인 정책에 대한 논쟁 가운데 후대에 첨부되었다고 본다.

둘째, 고엘에게 레비레이트혼을 할 의무는 없기에 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자켄펠드(Katharine Doob Sakenfeld)는 보아스가 룯의 고엘로서 룯과 레비레이트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룯과 혼인하는 것은 룯을 보호하기 위한 고엘의 숭고한 도덕적 의무로 이해

6 Julius A. Bewer, “The Goël in Ruth 4:14, 15”,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20(1904), 203.

7 참조,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 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집 (2017), 14-42; Hyun Chul Paul Kim, “Ruth vis-à-vis Esther: Reading Intertextually Ruth the ‘Widow’ and Esther the ‘Orphan’ as Diasporic ‘Immigrants’”, 『구약논단』 74집 (2019), 18-58.

한다.⁸ 이러한 견해들은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보아스가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겠다는 맹세가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4:5, 10).

본고의 목적은 신명기 25장 5-10절과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레비레이트 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아스와 룯의 혼인이 레비레이트 혼인지 논의한다. 또한 본고는 보아스가 오벳을 자신의 족보에 포함하는 동시에 어떻게 고인의 이름을 고인의 기업을 통해 이어갈 수 있는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신명기 25장 5-10절과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레비레이트 혼 규례

1) 함께 거주하는 “형제 된 의무”

레비레이트 혼 규례는 신명기 25장 5-10절에 명시되었다. 신명기 25장 5-10절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구절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조건적 규범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전치사 **כִּי**(기)를 사용하여 이 규례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상황으로 한정하며 시작하고 있다.⁹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삼대로 구성되어 함께 혹은 가까이 거주하였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라는 조건적인 구절은 넓은 의미의 친척을 포함하기보다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가정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함께 혹은 가까이 거주하는 대가족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규례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창

8 캐서린 두움 자켄펠드, 『룯기』(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39-140; Tamara Cohn Eskenazi, Tikva Frymer-Kensky, *Ruth*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76.

9 Jack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3), 706.

13:6; 36:7).¹⁰

함께 사는 형제는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נָשִׂיא**(야밤/형제 된 의무)을 이행해야 한다. “형제 된 의무”에 사용된 **נָשִׂיא**은 레비레이트혼 규례(신 25:5, 7)와 유다와 다말 본문(창 38:8)에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사망한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사망한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의무를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이다.¹¹ 유다와 다말 본문에서 레비레이트혼을 해야 하는 “형제 된 의무”는 함께 사는 형제 관계였던 엘, 오난, 셀라 사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한정되었다. 아버지였던 유다와 가까운 친족들은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레비레이트혼은 함께 사는 형제 사이에만 적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레비레이트혼이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계략을 통해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창세기 38장에서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에는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는 **נָשִׂיא**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레비레이트혼은 함께 거주하는 형제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레비레이트혼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자녀인 베레스와 세라는 엘의 이름을 잇는 대신 유다의 이름을 이어 유다의 족보에 포함된다.

10 Tigay, *Deuteronomy*, 231; Richard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98-299; David Daube, “Consortium in Roman and Hebrew Law”, *The Juridical Review* 62(1950), 74.

11 창세기 38장은 신명기 25장의 레비레이트혼이 법적으로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으로 레비레이트혼 관습이 선행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고대 근동에는 구약의 레비레이트혼처럼 고인이 된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법률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족장 시대의 레비레이트혼 관습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참조. 히타이트 규례 § 193, 중기 앗수르 규례 § 33, 우가릿 문서 16144). 김진명,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룻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 43-67; Kenneth A. Kitchen and Paul J. L., Eds., *Treaty, Law and Covenant in the Ancient Near East, part 1, The Texts* (Wiesbaden: Harrassowitz, 2013), 289, 667; Benjamin Kilchör, “Levirate Marriage in Deuteronomy 25:5-10 and Its Precursors in Leviticus and Numbers: A Test Cas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H and D”,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7(2015), 434-435.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בן**(벤/아들)이 없이 사망한 형제가 발생함으로 시작된다.¹² 혼인한 남성이 아들이 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할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과부는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에 남편 혹은 아들이 없는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과부는 재혼을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과부가 외부로 시집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 25:5). 레비레이트혼은 고인의 형제가 “형제 된 의무”(25:5)로서 과부와 혼인하게 되므로 과부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나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과부의 보호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과부에 대한 보호가 주된 목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고인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다. 룯기에서는 상속되는 기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신명기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와 유다와 다말 이야기(창 38장)는 상속되는 기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참조. 룯 4:3-10). 이름을 이어줄 후손이 기업을 당연하게 상속받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경우는 가나안 정착 후 상속될 기업이 있는 상황 이전인 족장 시대이기에 레비레이트혼의 주요 목적이 고인의 기업을 잇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12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בן**(“아들”)을 **σπέρμα**(“씨”)로 번역함으로써 본문을 아들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칠십인역 뿐 아니라 요세푸스(*Ant. iv. 254*), 탈무드(*b. Yebamot*), 신약(마 22:24; 막 12:19; 눅 20:28) 등의 사례들은 레비레이트혼 규례가 아들뿐 아니라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5-10절 본문에서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남성형인 **בן**(벤/아들)과 레비레이트혼을 통한 **בכור**(베크르/첫 번째 아들)로 하여금 고인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자녀보다는 아들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벨슨은 레비레이트혼의 상속자가 “아들”(신 25:5)로 명시된 것으로 볼 때 딸에 의한 상속의 가능성(민 27:4)은 레비레이트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Nelson, *Deuteronomy*, 298; Lundbom, *Deuteronomy*, 707.

세 번째 문제는 고인이 대를 이을 후사를 남기지 못함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사망한 이의 형제가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신 25:5).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부와 관계하는 것(“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뿐 아니라 아내로 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신 25:5). 레비레이트혼으로 낳은 **בְּכֹרֹת**(베코르/첫 번째 아들)는 사망한 형제의 이름을 잇게 되고 사망한 형제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다(신 25:6). 레비레이트혼 규례는 과부나 상속받는 기업에 보다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줄 후손을 강조하고 있다.

2)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다”의 의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신 25:6)라는 표현을 볼 때 고인의 이름을 잇는 전제 조건은 레비레이트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있어야 한다. **אָמַלְתָּ לָּוִי**(야롬 알-셈/이름을 잇는다) 표현은 동사 **אָמַל**(롬/세우다, 일어서다)과 명사 **לָוִי**(셈/이름)을 사용하여 “이름을 잇는다(세우다)”로 표현하고 있다(신 25:6, 7).¹³ 이 표현의 의미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고인에게 상속될 기업을 얻는다는 견해이다(b. Yebam. 24a; 요세푸스 Ant. iv. 254).¹⁴ 상속과 관련된 본문에서 “이름”은 상속되는 기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민 27:4; 룻 4:5, 10; 참조. 창 48:6). 민수기 27장의

13 자이들러(Seidler)에 따르면 “이름을 잇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고대 근동의 법적인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다. Ayelet Seidler, “The Law of Levirate and Forced Marriage-Widow vs. Levir in Deuteronomy 25.5-10”,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2018), 437.

14 Lundbom, *Deuteronomy*, 708; Tigay, *Deuteronomy*, 482.

슬로브하트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족속 가운데 삭제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청원한다. 넬슨은 “ ‘이름’은 기업과 관계된 법적 지위를 함축하며, 기업을 잃는다는 것은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수반한다”(민 27:4)고 이해한다.¹⁵ 이 첫 번째 견해를 레비레이트혼의 이름을 잇는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의 문제점은 “이름”이 상속되는 기업과 관계될 뿐 아버지의 이름이 지손을 통해 이어진다는 의미는 없다는 점이다.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족속 가운데 삭제되지 않게 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몫의 기업을 자신들이 상속받는데 있다. 민수기 27장의 규례는 이후 민수기 36장에서 수정되는데,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그 지파의 종족과만 혼인하여 기업이 그 지파 안에 계속해서 보전되게 한다.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36장의 주된 논의는 아버지의 이름이 후손과 기업을 통해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누구에게 상속되고 보전되는가가 주요한 목적이다.

두 번째 견해는 레비레이트혼을 통하여 사망한 형제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을 낳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을 통하여 이어진다. 고인이 된 후에도 후손을 통해 이름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는 성경의 족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 후손이 없는 경우 족보는 지속하지 않고 고인의 이름은 사라지게 된다. 창세기 38장에는 신명기 25장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와 같은 상황에서 “이름을 잇는다”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난다. 유다는 오난으로 하여금 사망한 형제 엘을 위해서 과부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제 된 의무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명령한다(창 38:8, 9). 이 표현은 레비레이트혼 규례의 “이름을 잇는다”는 표현처럼 동사 **יקח**과 함께

15 Neslson, *Deuteronomy*, 298.

명사 **עֲרֵב**(제라/씨)를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עֲרֵב**는 후손 혹은 정액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창 12:17; 13:15, 16; 15:3, 5). 창세기 38장의 사망한 형제를 위해 과부에게 들어가 “씨가 있게 하라”는 표현은 고인을 위하여 후손을 낳으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사망한 형제의 “이름을 잇는다”(신 25:6,7)는 표현과 상반된 개념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신 25:6)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 **קָטַף**(마하/없애다)와 명사 **שֵׁם**으로 구성된 “이름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두 차례 더 나타난다(신 9:14; 29:20[19]). 두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도 사용된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인(시 9:6[5])과 고리대금업자들(시 109:13)의 이름이 없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시편 109:13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평행법을 통해 본다면 이름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상속되는 기업보다는 자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명기와 시편에 사용된 “이름이 끊어지다”는 표현은 상속되는 기업보다는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이름을 잇는다”라는 표현과 “이름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공통으로 후손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부가적 규례: 형제 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신명기 25장 7-10절은 고인의 형제가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싫어

16 티게이는 아카디안 사례에서 “이름”은 “자손”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이름을 잇는다는 표현은 자손을 이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Tigay, *Deuteronomy*, 233.

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적인 규례를 첨가하고 있다. 이럴 때 과부는 다음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과부는 성읍의 재판이 이루어지던 성문으로 나아가 장로들 앞에 선다(신 19:12; 21:20; 22:15-18). 과부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고인의 형제가 “형제 된 의무”를 따라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고인이 된 남편의 후사를 잇지 못하게 되고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되었다고 고발한다(참조. 룻 4:7-8). 성읍의 장로들은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형제를 불러 그의 결심을 확인한다. 과부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 거부한 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에 앞으로 그의 이름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울 것을 선언한다(신 25:9-10). 구약에서 신을 벗음(삼하 15:30; 사 20:2)과 침 뱉음을 당함(민 12:14; 사 50:6)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¹⁷

이러한 부가적인 규례가 첨부된 것은 레비레이트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참조. 창 38:9). 신명기 25장 5-10절의 의도는 레비레이트혼 규례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형제 된 의무”를 시행할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레비레이트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약의 법률과 관련된 징벌 중 레비레이트혼 규례처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¹⁸ 수치심을 유발하는 징벌은 심각한 징벌일 수 있으나 수치심을 감수하고서라도 레비레이트혼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강력한 수준의 징벌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 Nelson, *Deuteronomy*, 299.

18 Daube, “Consortium in Roman and Hebrew Law”, 77-78.

3. 룯기에 나타난 룯과 보아스의 혼인의 정체성

1) 레비레이트혼 규례를 인지하고 있는 나오미와 룯

룯기 1장은 레비레이트혼을 논의하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한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룯과 오르바와 혼인하지만 두 아들도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이름을 이어 줄 자녀가 없기에 이스라엘 중에 그들의 이름은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이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1:11-12).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레비레이트혼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나오미에게 말론과 기론의 형제로 태어날 아들이 태중에라도 있다면 태어날 아들은 레비레이트혼 규례를 따라 형제 된 의무를 할 수 있지만, 태중에 아이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나이가 많기에 혼인을 할 수 없을 것을 언급한다. 레비레이트혼의 경우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을 경우 자녀를 낳을 수 없음으로 레비레이트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오미는 끝까지 자신과 함께 가겠다는 룯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1:15)고 말한다. 여기서 “동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אִשְׁתִּי**(여배우/동서)는 구약에서 룯기 1장 15절(2회)과 레비레이트혼 규례가 나오는 신명기 25장 7절(2회)과 9절에만 나타나는 단어이다. 신명기 25장에서 **אִשְׁתִּי**는 사망한 형제의 아내를 의미하고

있다.¹⁹ 나오미가 레비레이트혼을 염두하고 있던 상황에서 히브리어 **נָשִׂיא**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 단어는 레비레이트혼 규례와 관련된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מִשְׁבָּט**(야밤/형제 된 의무)이 레비레이트혼을 뜻하는 전문적 용어라면 **נָשִׂיא**는 레비레이트혼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안에서 사망한 형제의 아내 혹은 남편의 사망한 형제의 아내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룯기 1장에서 나오미가 레비레이트혼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나오미와 룯은 레비레이트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레비레이트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룯은 자신들에게 고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레비레이트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부에게 레비레이트혼은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을 잇기 위한 당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과부는 형제 된 의무를 진 자에게 레비레이트혼을 신청하고 그 의무를 맡은 자가 거부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불명예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룯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나 보아스에도 레비레이트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엘은 가까운 친족의 의무가 있지만, 형제 된 의무인 레비레이트혼에 대한 의무는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엘리멜렉의 가족과 보아스와의 관계

룯과 보아스의 혼인의 정체성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 할 수 있는가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가 레비레이트혼을 해야 하는 형제의 관계인가 혹은 레비레이트혼의 의무가 없는 친족의 관계인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룯기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를 통해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19 김의원/민영진, 『사사기/룯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724-725.

내레이터는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מִשְׁפָּחָה(미쉬파하/친족) 중 엘리멜렉의 מִיָּדָע(머유다/가까운 친족)으로 소개한다(2:1; 3:2).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같은 친족으로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소개된다. 친족으로 사용된 מִיָּדָע는 히브리어 יָדָע(아다/알다)를 어근으로 하는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알려진 자”로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מִיָּדָע는 구약에서 6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족 관계뿐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지인까지도 포함 할 수 있는 표현이다(왕하 10:11; 시 31:12; 55:14; 88:9, 19; 욥 19:14; 참고. 잠 7:4).²⁰ 이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관계는 본문의 문맥 가운데 가족, 친족, 친구, 가까운 지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룻기 2:1에서 מִיָּדָע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잘 아는 관계이기에 친구나 가까운 지인보다는 친족의 범주 안에서 가까운 관계나 가족에 해당한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로 룻에게 소개하고 있다(2:20).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을 무를 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한다. “기업을 무를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형제, 삼촌, 사촌, 친족 순서이다(레 25:48-49). 고엘이라는 용어만으로 볼 때 보아스는 가장 가까이는 엘리멜렉의 형제일 수도 있으나 멀게는 친족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형제였다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로 소개하기보다는 “형제 된 의무”를 가진 자로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고엘 중 가까운 사람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

20 프레드릭 W. 부쉬, 『룻기·에스더』(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68-170; Eskenazi and Frymer-Kensky, *Ruth*, 27.

고 있다. 히브리어 **קָרָב**(카로브/가까운 사람)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사용되는 특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사용되기도 한다(레 21:2-3; 25:25; 민 27:11; 삼하 19:42[43]). 구약에서 이 표현은 문맥 가운데 그 의미가 정해진다.²¹ 레위기 25장 25-34절은 고엘 제도 가운데 기업을 무를 자를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나오미가 보아스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한 두 표현인 **אָבִיב**과 **קָרָב**가 포함된다. 레위기 25장 25절을 통해 볼 때 나오미가 보아스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한 두 단어는 어떤 친족 관계를 특정하기보다는 기업을 무를 자 중 가장 가까운 고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을 “우리 형제”라고 지칭한다(4:3). **אָחִי**(아흐/형제)라는 표현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 관계를 주로 의미하지만, 사촌(창 13:10), 고엘의 의무가 있는 가까운 친족(레 25:25, 47), 그리고 친족 관계를 넘어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창 29:4). 보아스와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과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로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본문에서 둘 사이는 이복형제처럼 가깝게 묘사되지 않는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그를 **אֶלְמוֹנִי אֶלְמוֹנִי**(엘로니 알모니/아무개)라고 부른다(4:1). 이 표현은 성경에서 룻기 4:1을 포함하여 세 차례

21 레위기 21장 2-3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례식을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로 한정하면서 가족들을 아우르는 단어로 **קָרָב**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사무엘하 19장 42[43]절에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다윗 왕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קָרָב**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엘하 19:42의 **קָרָב**은 가족이나 친족을 넘어서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קָרָב**가 기업 상속의 문맥 가운데 사용된 민수기 27장의 경우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순서는 아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 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형제, 형제가 없는 경우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받게 된다(민 27:11). 기업을 상속 받게 되는 최종적인 친족의 관계를 표현할 때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קָרָב**를 사용하고 있다. 민수기 27장의 기업 상속에 대한 규례에 비추어 나오미가 사용한 **קָרָב** 표현을 이해한다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함께 거주했던 형제보다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주 중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2:1, 20).

사용되고 있는데 익명의 사람(룻 4:1) 혹은 익명의 장소(삼상 21:3; 왕하 6:8)를 의미한다. 보아스가 같은 마을에 사는 이복형제의 이름을 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을 익명의 “아무개”(개역개정) 혹은 “여보시오”(새번역)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이복형제 사이보다는 먼 관계이며 엘리멜렉의 이복형제들로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룻기 4장에 나타난 보아스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신명기 25장의 규례에 해당하는 말론과 기론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는 아니었다. 그들은 엘리멜렉에게 레비레이트혼의 의무를 지닌 형제들은 아니었으며 고엘의 의무를 지닌 친족 중 가까운 친족이다.

3) 고엘은 레비레이트혼의 의무를 가지는가?

룻기에는 기업 무를 자인 לַחַיִל(고엘/가까운 친족 기업무를 자)과 לַחֲנֹךְ(가알/기업을 무르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표현들은 룻기의 95절 가운데 22회 등장하고 있다(2:20; 3:9, 12(2회), 13(4회); 4:1, 3, 4(5회), 6(5회), 8, 14). 룻기에는 형제 된 의무로서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는 מִקְרָב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의미하는 לַחַיִל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룻과 보아스의 혼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룻기 4장에는 고엘이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룻기 4장의 성문 앞 장면은 고인이 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무르기 위한 고엘의 의무를 위한 회합으로 시작한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은 그 소유지를 자신이 무름으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표현한다(4:4). 그러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뿐 아니라 룻을 사야하고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언급하자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무를 의무를 거절한다(4:5).

4장 10절에 의하면 롯을 산다는 표현은 롯을 아내로 삼으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4장 5절과 10절에서 보아스가 롯과의 혼인을 언급하는 것과 고인의 이름을 기업에 세우는 것은 그들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추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4:5 וַיֹּאמֶר בְּעֵז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קְנִיתִי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보아스가 이르되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나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롯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에 세울 것입니다. (사역)

4:10 וְגַם אֶת-רוּת הַמּוֹ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 לִי לְאִשָּׁ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וְלֹא-יִכָּרֵת שָׁם-הַמָּת מֵעַם אֲחֵיו וּמִשְׁעֵר מִקוֹמוֹ עָרִים אַתֶּם הֵיئֶתְמוּ

또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사역)

4장 5절의 번역과정에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다. 첫째, 본문에서 **אַבְיָ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치사 **מִן**이 전치사 **אֵת**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이해 될 경우 앞 구절과 연결하여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리고 모압 여인 롯으로부터 그 밭을 사는 날”로 번역할 수 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하여 나오미와 롯이 공동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 해석의 문제점은 모압 여인 롯 뒤에 단수로 사용된 “고인의 아내”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이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아내가 지칭하는 사람은 나오미가 더 적합하나 “고인의 아내”라는 표현이 롯의 뒤에 위치해

있어 나오미인지 룻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상태가 된다. 10절에 동일한 내용에서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0절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 구절은 전치사 **ל**이 목적격 조사 **אא**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뒤에 나오는 **קנייה**(카니타/당신이 사다)의 목적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로 10절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4장 5절의 주요한 두 번째 이슈는 **קנה**(카나/사다)를 케티브 **קניתי**(카니티/내가 사다)로 읽을 것인가 혹은 케레 **קנייתה**(카니타/당신이 사다)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케레 리딩을 따라 2인칭으로 읽게 될 경우 가까운 친족은 소유지를 사고, 룻과 혼인하여 고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야 한다. 보아스가 이 조건을 제시할 때 가까운 친족은 엘리멜렉의 소유지 무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가까운 친족은 고인의 아내와 혼인해야 할 것과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엘이 고인의 기업을 상속받거나 무르는 것은 고엘의 의무이지만 고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고엘의 의무가 아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아스도 이미 3장 10절에서 룻이 누구와도 혼인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²² 그럼에도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룻을 아내로 삼고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인의 유가족을 거두어주는 것과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고엘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평판과 관계된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²³

22 “가로되 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좃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품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3:10). 만일 형제간의 의무였던 레비레이트혼의 개념이 역사가 흐르면서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확장되었다면 과부가 재혼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거주하는 형제로부터 가까운 친족 안이라는 범주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룻기 3장 10절의 보아스의 말은 룻이 가까운 친족의 범주를 넘어서 재혼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23 룻기는 사회적 평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참조, 2:11-12; 3:11, 13-14; 4:14).

케티브 리딩은 가까운 친족이 소유지를 살 때 보아스는 룫과 혼인하여 고인의 기업을 고인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의미한다. 보아스가 룫과 혼인하는 것 자체는 가까운 친족에게 크게 손해가 될 것이 없다. 가까운 친족에게 손해가 될 것은 기업을 고인의 이름으로 잇는 데 있다. 보아스와 룫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보아스와 룫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다고 이해한다. 이 경우 그 자녀가 고인이 된 엘리멜렉과 가장 가깝기에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될 때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시 무르고 가지고 오거나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가 룫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자녀에게 기업이 되돌아가게 되기에 자신에게 손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본다. 이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아스와 룫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데 있다.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를 따르게 된다면 여전히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은 계속해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남게 되고 자신이 엘리멜렉의 토지를 무른 것은 계속 그의 소유로 남게 된다.

보아스에게 룫과의 혼인과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는 것은 가까운 친족의 입장처럼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고인의 유가족인 룫을 거두어 주고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는 것은 룫과 나오미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보살피려고자 하는 보아스의 자비로운 성품(헤세드) 혹은 룫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고인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운다”는 구절의 의미

룻기 4장 5절과 10절이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이 구절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인의 이름을 그 기업에 세운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고인의 이름을 세우는 것 즉 고인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과 창세기 38장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동사 **קָבַץ**과 명사 **קָבָץ**을 사용하여 레비레이트혼을 통해 태어난 첫 아들이 고인의 이름을 이어간다(신 25:6, 7). 이를 통해 고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 창세기 38장에서는 동사 **קָבַץ**과 함께 명사 **קָבָץ**를 사용하여 고인이 된 형제를 위해 후손을 잇게 하는 것을 레비레이트혼의 목적으로 표현한다(창 38:8, 9).

룻기에서도 동사 **קָבַץ**과 명사 **קָבָץ**을 사용하여 고인의 이름을 잇는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룻기에는 레비레이트혼을 통해 태어난 첫 아들을 통해 고인이 된 형제의 이름이 이어진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고인의 이름은 기업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혼인으로 태어난 첫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이름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룻기에서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는다는 표현은 신명기 25장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에서 사용된 고인의 “이름을 잇는다”는 표현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고인의 “이름을 잇는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켄펠드는 “최소한 어떤 친족과 결혼한 이 과부의 이야기가 재낭송 되면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곧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이 가문(‘그 형제’)과 공동체에서(‘성문에서’) 계속 기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안한다.²⁴ 그러나 룻기 4장 5절과 10절은 고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재낭송이 되는 것이 아닌 기업과 관련하여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고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 위에 세운다”는 표현이 문자적 의미처럼 그 기업의 명칭을 ‘엘리멜렉의 기업’ 혹은 ‘말론의 기업’처럼 고인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

24 자켄펠드, 『룻기』, 143-144.

게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4:10). 비슷한 사례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우게 되고 그 비석은 “압살롬의 기념비”로 후세에 일컬어지게 된다(삼하 18:18). 고인의 이름을 이어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으로 기업이 일컬어지는 사례는 “나봇의 토지”라는 명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왕하 9:21, 25).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기업을 탐내어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죽게 한 후 그의 기업을 빼앗아간다(왕상 21:1-16; 왕하 9:26). 그 기업은 더 이상 고인이 된 나봇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봇은 이름을 이어줄 후손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은 고인이 된 나봇의 기업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왕하 9:21, 25). 불의하게 희생된 나봇의 이름으로 토지가 일컬어짐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룯기에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고인의 기업의 명칭을 고인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인의 기업을 소유하게 될 고엘에게 이러한 행위는 고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예우 일 수 있다.

4. 나가는 말

형제 된 의무로서 레비레이트혼은 신명기 25장 5-10절의 레비레이트혼 규례와 창세기 38장의 레비레이트혼 사례에 나타나고 있다.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는 용어인 “형제 된 의무”는 이 두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본문에 나타난 레비레이트혼의 주요 목적은 형제 가운데 아들이 없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고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첫 아들을 낳아 사망한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두 본문에서 고인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후손을 통해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인의 기업을 통해 고인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고인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것이 기업을 통해서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형제 된 의무”라는 레비레이트혼을 의미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레비레이트혼과 유사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자는 룻과 보아스의 혼인을 전통적인 레비레이트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수정된 레비레이트혼, 혹은 함께 거주하는 형제로부터 가까운 친족인 고엘에게까지 확장된 레비레이트혼으로 제안한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5-10절과 창세기 38장의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룻과 보아스의 혼인의 정체성을 연구할 때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부터 레비레이트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도 레비레이트혼을 요구할 대상이 없었다. 또한 보아스는 고인이 된 엘리멜렉 혹은 말론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아닌 가까운 친족, 즉 고엘이므로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할 의무나 권리가 없었다. 특히 룻과 보아스의 혼인으로 태어난 첫 아들인 오벳은 레비레이트혼의 가장 주요한 목적과는 달리 고인이 된 말론의 족보가 아닌 보아스의 족보에 포함된다.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보아스가 고엘로서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선 그의 높은 차원의 도덕적 의무감 혹은 룻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룻과 보아스의 혼인을 레비레이트혼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보아스가 고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않게 실행할 수 있는가이다(4:10).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서 고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면 가능한 대안은 엘리멜

렉의 토지 혹은 말론의 기업으로 그 기업을 일컬어지게 함으로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열왕기서에서 나봇은 죽음 후 그의 기업을 아합에게 빼앗기고 그의 아들들도 죽어 나봇의 이름을 이어줄 후사가 없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고인의 기업을 “나봇의 토지”로 부름으로 고인이 된 나봇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 압살롬은 후사가 없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이 아니었으므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포함되는 룯기의 족보는 룯기가 기록될 당시 독자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룯기는 가뭄과 죽음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작하지만 룯, 나오미,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는 숭고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 주었다(1:8; 2:20). 나오미는 룯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려 노력하였다(1:9; 3:1). 보아스는 고엘로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높은 도덕적 의무감을 통해 룯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 시켜 주었다. 룯과 보아스의 혼인은 레비레이트혼이라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숭고한 차원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통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준 혼인이었다.

5. 참고도서

김진명,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룯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 43-67.

www.kci.go.kr

- 김의원/민영진, 『사사기/룻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 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집 (2017), 14-42.
- 프레드릭 W. 부쉬, 『룻기·에스더』(정일오 옮김), (WBC 주석, 서울: 솔로몬, 2006).
- 캐서린 두움 자켄펠드, 『룻기』(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Ayelet Seidler, “The Law of Levirate and Forced Marriage–Widow vs. Levir in Deuteronomy 25.5–10”,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2018), 435–456.
- Benjamin Kilchör, “Levirate Marriage in Deuteronomy 25:5–10 and Its Precursors in Leviticus and Numbers: A Test Cas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H and D”,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7(2015), 429–440.
- David Daube, “Consortium in Roman and Hebrew Law”, *The Juridical Review* 62(1950), 71–91.
- Dvora E. Weisberg, “The Widow of Our Discontent: Levirate Marriage in the Bible and Ancient Isra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2004), 403–429.
- Eryl W. Davies, “Inheritance Rights and the Hebrew Levirate Marriage Part 1”, *Vetus Testamentum* 31(1981), 138–144.
- Eryl W. Davies, “Inheritance Rights and the Hebrew Levirate Marriage Part 2”, *Vetus Testamentum* 31(1981), 257–268.
- H. H. Rowley, “The Marriage of Ruth”, *Harvard Theological Review* 40(1947), 77–99.
- Hyun Chul Paul Kim, “Ruth vis-à-vis Esther: Reading Intertextually Ruth the ‘Widow’ and Esther the ‘Orphan’ as Diasporic ‘Immigrants’”, 『구약논단』 74집 (2019), 18–58.
- Jack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3.
- Jeffrey H. Tigay,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Julius A. Bewer, “The Göel in Ruth 4:14, 15”,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

guages and Literatures 20(1904), 202–206.

Kenneth A. Kitchen and Paul J. L., Eds., *Treaty, Law and Covenant in the Ancient Near East, part 1, The Texts* (Wiesbaden: Harrassowitz, 2013).

Michael D. Matlock, “Obeying the First Part of the Tenth Commandment: Applications from the Levirate Marriage Law”,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2007), 295–310.

Raymond Westbrook, *Property and the Family in Biblical Law* (Sheffield: JSOT Press, 1991).

Richard Bauckham, “The Book of Ruth and the Possibility of a Feminist Canonical Hermeneutic”, *Biblical Interpretation* 5(1997), 29–45.

Richard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Tamara Cohn Eskenazi, Tikva Frymer-Kensky, *Ruth*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검색어

레비레이트혼

고엘

룻

신명기 25장

유다와 다말

〈Abstract〉

Obed the Son of Boaz: Is the Marriage of Ruth and Boaz a Levirate Marriage?

Jun Kim Ph.D.

Visiting Professor and Chaplain

Myong Ji University

According to the law of a levirate marriage in Deuteronomy 25:5-10, a levirate marriage aims to “succeed to the name of the deceased brother, so that his name may not be blotted out of Israel” (v. 6). The marriage of Ruth and Boaz in the book of Ruth is often considered a levirate marriage. If Boaz’s marriage is a levirate marriage, Obed should be the child who will succeed to the name of Ruth’s deceased husband, Malone. However, Obed is included in Boaz’s genealogy, not in Malone’s (4:21; cf. Matt 1:5). It can be assumed that Obed’s inclusion in Boaz’s genealogy caused no issues in the minds of readers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Ruth. Given that the book of Ruth does not

www.kci.go.kr

give any explanation of Obed's inclusion in Boaz's genealogy, the inclusion of Obed in Boaz's genealogy can be understood as a generally acceptable case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Ruth.

Through the study of a levirate marriage in Deuteronomy 25:5-10 and Genesis 38, I propose that the marriage of Boaz and Ruth cannot be seen as a levirate marriage. First, Naomi and Ruth recognized that they could not expect a levirate marriage from the land of Moab. Even after returning to Bethlehem, they had no one to ask for a levirate marriage. Second, Boaz had no obligation to fulfill the duty of husband's brother (*yābām*), since he was a close relative, that is, *gō'ēl*, not a brother who lived with the deceased Elimelech or Malone. Third, Obed, the first son born of the marriage of Ruth and Boaz, is included in Boaz's genealogy, not in the genealogy of the deceased Malone's, contrary to the main purpose of a levirate marriage. It can be understood, therefore, that the marriage of Ruth and Boaz is not a levirate marriage. We can understand that the marriage of Ruth and Boaz is based on Boaz's high-level of moral obligation beyond his duty as *gō'ēl* or his genuine love for Ruth.

Key Words

Levirate Marriage

Goel

Ruth

Deuteronomy 25

Judah and Tamar

- 투고일: 2020년 10월 14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